연구산업 컨퍼런스 2018 뉴스클리핑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17.11.29>

□ 보도 결과(6개 매체, 총 15개 기사)

No	매 체 명	날짜	제 목	형태
1	머니투데이	11월 28일	"혁신기업으로 가는 길...경제구성원간 '협력'서 찾아라"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2815501810798&type=1	지면/온라인
2	디지털타임스	11월 28일	"한국 연구산업 발전하려면 실수에서 배워라"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112902150976788001&ref=naver	지면/온라인
3	디지털타임스	11월 28일	`연구산업` 과기 혁신성장 동력으로 키운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112802109976788003&ref=naver	온라인
4	디지털타임스	11월 28일	<사진>연구산업 콘퍼런스 2018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112802109976788004&ref=naver	온라인
5	전자신문	11월 28일	"연구산업, 혁신성장 동력으로" 과기정통부 컨퍼런스 개최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2815501810798&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온라인
6	데일리안	11월 28일	과기정통부, '연구산업'으로 혁신성장동력 마련 http://www.dailian.co.kr/news/view/676735/?sc=naver	온라인
7	이데일리	11월 28일	[포토]'연구산업 컨퍼런스 2018'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844166616130312&mediaCodeNo=257&OutLnkChk=Y	온라인
8	이데일리	11월 28일	[포토]'연구산업 컨퍼런스 2018' 환영사하는 이진규 차관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847446616130312&mediaCodeNo=257&OutLnkChk=Y	온라인
9	이데일리	11월 28일	[포토]연구산업 유공자와 함께한 이진규 차관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837606616130312&mediaCodeNo=257&OutLnkChk=Y	온라인
10	이데일리	11월 28일	[포토]연구산업 유공자 시상하는 이진규 차관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840886616130312&mediaCodeNo=257&OutLnkChk=Y	온라인
11	이데일리	11월 28일	[포토]자동차 엔진 설명듣는 이진규 차관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831046616130312&mediaCodeNo=257&OutLnkChk=Y	온라인
12	뉴시스	11월 28일	연구산업 컨퍼런스 2018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1128_0013599255	온라인
13	뉴시스	11월 28일	연구산업 컨퍼런스 2018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1128_0013599257	온라인
14	뉴시스	11월 28일	연구산업 컨퍼런스 2018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1128_0013599258	온라인
15	뉴시스	11월 28일	환영사 하는 이진규 차관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1128_0013599256	온라인

<지면기사 스크랩>

머니투데이

2017년 11월 29일
16면 (IT,과학)

인터뷰 ARM홀딩스 공동설립자 튜더 브라운 전 CEO

"혁신기업 가는 길, 경제구성원간 '협력'서 찾아라"

'연구산업 컨퍼런스' 기조연설… "소프트뱅크와 협업, IoT·커넥티드카 시장 선점 자신"



"핵심역량을 제외하곤 업무의 아웃소싱을 점점 늘리는 추세입니다. 기업 R&D(연구·개발) 영역도 상당부분 전문기업에 맡겨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ARM홀딩스(이하 ARM) 공동설립자 튜더 브라운 전 CEO(최고경영자·사진)가 강조한 말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의 주관으로 열린 '연구산업 컨퍼런스 2018' 행사에 참석한 그를 기자가 만났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브라운 전 CEO는 ARM에서 20년간 쌓은 경영노하우를 토대로 '기술혁신 기업의 성공비결'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건강한 R&D 아웃소싱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비용이 아닌 결과로 효율성을 측정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1990년 공동창업한 ARM은 저전력 반도체 칩셋을 개발, 현재 스마트폰시장 점유율 95%를 확보한 세계 2위 반도체 설계회사다. 이 회사는 지난해 7월 일본 소프트뱅크가 약 35조원에 인수해 주목받았다.

그는 무엇보다 외부 생태계와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복잡해져만 가는 정치·경제·사회영역에서 기업, 대학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경제 구성원간 협력은 최고의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축이 될 것"이라며 "R&D 생산성을 제고하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외부 협력사와 신뢰에 기반한 의사소통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 전 CEO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실패했다는 것을 해고의 구실로 삼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뮬러원 경기를 예로 들며 "사고를 낸 운전자를 해고한다면 경기에 참여할 팀을 구성하기도 힘들고 어떤 사고도 없는 안전하기만 한 레이싱경기는 오히려 경기의 긴장감을 느슨하게 만들어 관객들이 경기장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혁신기업으로 가는 길에서 대부분 실패를 경험하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며 "실패한 조직 구성원은 혁신의 선봉자로 만들고 실패사례는 조직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학습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라운 전 CEO는 지난해 하반기 소프트뱅크와 한가족이 된 ARM이 앞으로 사업다각화를 통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앞으로 소프트뱅크의 인프라와 ARM 칩 내장 제품을 연결해 IoT(사물인터넷)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커넥티드카(무선통신 연결차량), 스마트로봇시장 선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브라운 전 CEO는 현재는 글로벌 PC제조사 레노버그룹, 중국 최대 파운드리업체 SMIC, 미국 반도체 패키징시스템 전문업체 테세라 등 다수 기업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한다.

류준영 기자 joon@

(29.4*12.5)cm

디지털타임스

2017년 11월 29일
09면 (IT,과학)

"한국 연구산업 발전하려면 실수에서 배워라"

튜더 브라운 전 ARM 홀딩스 사장

"새 아이디어 계속 흐를 수 있는 '파이프라인' 만드는 것이 중요"

"연구를 잘 하려면 한 번의 실수는 용인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합니다."

28일 서울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에서 열린 '2018 연구산업 콘퍼런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튜더 브라운 전 ARM 홀딩스 사장(사진)은 한국의 연구산업 발전을 위해 "실수를 통해 배워라"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연구산업을 위한 많은 조건이 갖춰져 있다"며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 자유로운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경직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든 경험이 여럿 있지만 제품을 만드는 것과 혁신적인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라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흐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를 연구하는 산업'인 연구



28일 서울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튜더 브라운 전 ARM 홀딩스 사장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산업을 과학기술 분야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다. 연구산업은 첨단 연구장비를 개발·유지·보수하거나 시험·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R&D 과정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거나 단계별 결과물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더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영국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인 ARM은 주문 연구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전 세계 스마트폰의 95%가 ARM의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탑재하고 있지만 이 회사에는 공장이 없다. ARM이 AP를 설계하면 라이선스를 구매한 퀄컴·애플·삼성 등이 이를 응용해 각기 다른 성능과 특성을 가진 칩을 만들어낸다. 1990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ARM의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공급된 칩은 1000억개에 달한다. 지난해 소프트뱅크는 사물인터넷(IoT) 분야 주도권 확보를 위해 ARM을 234억 파운드(약 35조원)에 인수했다.

ARM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으로 지난 2012년 퇴직 전까지 20년 간 회사에서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쳐 온 튜더 브라운은 ARM의 경쟁력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리와 약간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여지 사이의 균형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레이싱 경기에 나온 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매니저나 팀 동료들은 그를 나무라지 않는다"며 "ARM의 엔지니어들에게 오직 CPU의 속도를 높이는 데만 집중하라고 강요했다면 다른 혁신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수를 하되 반복하지 말고 내용을 공유하라"며 "조직이 실수를 학습기회로 삼을 때 다음 단계로 발전할 기회가 생긴다"고 조언했다.

남도영 기자 namdo0@

(17.1*15.9)cm